

3. 지역개발

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순천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1972~198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순천은 광주권의 3개 소권 중 1개 소권의 중심도시로서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개발중심지로 지정·육성되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광주~순천을 잇는 호남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이 지역의 주요 국도에 대한 확장 및 포장이 이루어져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2~199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추진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교육·문화·행정의 중심도시인 순천은 순천지방도시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 제2차 성장거점도시로 지정되었다. 특히 부산과 광주지역을 잇는 연결거점기능과 광양만 공업지대의 서비스 공급기능 및 주변지역 농수산물의 집산·중개기능을 담당토록 육성되었다.

이 계획의 지역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산업개발을 위하여 광양만공업지대를 개발하면서 그에 따른 연관산업을 순천을 비롯한 여수·여천·광양 등 중심도시에 유치하였다. 유치업종은 식품·섬유·비료·화학·철강·토석제품 등이었다. 그리고 교통망의 확충을 위하여 순천생활권에 주요 도로망을 확충하였는데 순천~여수 사이의 국도4차선화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

활편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시시설인 상업·문화·교육·복지시설을 증설하였고, 한려수도개발에 따른 관광자원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고흥군 등 인근지역의 농업개발에 발맞추어 농산물의 집산·가공·분배시설을 확충하였고, 지역의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사천댐을 건설하였다.

1992년부터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추진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주력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배후 농촌지역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며 순천과 광양·여천·여수 등 이 지역의 도시들을 상호연계하는 연담도시권을 형성하여 도시기능을 상호보완키로 하였다. 특히 임해공업과 국제교역 등 관련기능의 활성화, 수산업기능의 확충, 해상·산악 등 관광기반의 정비와 연계개발에 중점을 두고 순천 등 중심도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기간에 인천~목포~광양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되며, 광양만 2·3단계 항만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컨테이너부두에서 30분~1시간 교통시간 거리대에 인구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가 건설되는 등 광역적 지역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